

선재동자 미키마우스에 도전

불교팬시용품 4백여종... 유아포교사로도 각광

소재개발·디자인·색상 고급화 추세

이은자 기자

부처님의 포마제자 선재동자가 어린이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벗으로 새겨질 날이 머지 않았다. 삼보로서 존경해야 할 분이면서도 어렵게만 느껴졌던 스님이 어린이들처럼 화연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다.

결집하고 목탁을 든 장난기 어린 친숙한 모습의 선재동자 모델은 목걸이, 집게, 메모판, 공부종 안내표, 벽걸이 등 여러가지 형태로 제작돼 어린이와 어른이 모두 좋아하는 인기상품으로 외국관광객들에게까지 인기가 높다. 기적해야 초와 향, 합장수가 신령상품의 전부였던 불교계에 근래들어 다양한 용품이 개발되면서 선재동자를 비롯 50여종목 4백여종의 불교팬시용품이 주목을 끌고 있다.

불교팬시용품은 80년대말 도심생활과 포교단을 중심으로 어린이법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질적으로 부풀었던 출석부, 스티커, 법문노트 등 법회용품개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제작됐다. 연꽃연필, 부처님연필, 법구경연필, 코끼리볼펜, 필통, 학습노트, 일기장, 지우개, 샤프펜슬 등 문구류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불교팬시용품은, 단순히 예쁘고 보기좋은 물건을 만든것이 아니라 불교의 이미지와 교리, 법문을 담아 간접적인 불교포교의 역할을 함께하는 상품의 성격까지도 담아내



◇ 최근 선재동자를 비롯 50여종목 4백여종의 불교팬시용품이 선보여 불자와 외국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어린이 포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어린이 팬시용품의 주요 소재는 연꽃, 포마동자, 코끼리, 목탁, 입주들로 불자들이뿐만 아니라 일반어린이에게까지 친근한 느낌을 준다.

문구류를 기본으로 어린이들이 불교와 쉽게 친근해 질 수 있고 간접적으로 불교를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게하는 아가지장염소고리, 목탁염소고리, 꾸러기 3종자, 동자지급통, 도시락, 수저통, 물통, 연꽃젓지, 부처님목걸이, 연승용코마목탁, 동전지갑, 양말, 반야심경이 적힌 손수건 등 다양한 상품들도 현재 선보이고 있다.

서울 하계동 박지수어린이(용동국교 4)는 "절에서 상품으로 받은 연꽃연필로 글씨를 쓰고, 부처님이 그려져있는 도시락에 점심을 담아오는 것을 친구들이 신기하고 부럽게 생각합니다."라면서 "반야심경이 쓰여있는 책받침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빨간, 노랑, 파랑색의 합장주를 팔처럼 차고 다니는 여자애들도 많아요."라고 말했다.

어린이불교용품에서 출발한 불교팬시용품이 이제는 청소년과 성인불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불자 중등학생과 대학생사이에서는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의 선물로서 불교적 이미지를 지

닌 물건을 선물로 주는 것이 유행되고 있으며, 불자를 가운데 합장주와 목걸이, 반지 등 한두점의 불교장신구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다. 현재 조계사 근처 대부분의 불교용품점에는 이같은 불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연꽃색주머니, 반야심경주머니, 향꽂이, 벽걸이, 판화, 다포, 패션합장주, 만자를 새긴 반지, 목걸이, 브로치, 반야심경으로 디자인된 넥타이 등 5천원에서부터 10만원 미만의 상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포교의 일선에서 느꼈던 체험을 바탕으로 불교팬시용품 개발과 제작의 선구자로서 꾸준히 활동해오면서

만 화

법구경

대구(對句)의 장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저승에서도 기뻐한다



위험! 급커브! 사고 안당! 속도 줄여라!

흥! 그런 경고야 조바나 지키는 거지

아! 앞에...

아! 피부성이 크... 큰일 났구나

보... 본사람 없지...

빨리 이곳을 피해야 한다

어를 기다리다간 감옥살이다

왜이리 멀리서 혹시 평소니친절 누가 보지라도 했더라...

어보게

헉!

아니! 왜그렇게 놀라나?

멀고 있잖아

왜 출장갔던 일이 잘되지 않았나?

아... 아닙니다

아...

도무지 아무일도 할수가 없어

흥이야!

당신, 요즘 이상해 겠어요 왜그래요?

아... 아냐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저승에서도 근심한다 악을 행한 사람은 두곳에서 괴로워한다 괴로운 자신의 더러운 행실을 보면서

아니! 길바닥에 사람이...

누가 사람을 치고 명소리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급한 일로 택시를 타셨다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 뵈웠군요

선생님 은덕에 5대독자 목숨 건졌습니니다

이 은혜 뵈로 깊어야 할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저승에서도 기뻐한다 선을 행한 사람은 두곳에서 기뻐한다 복지는 자신의 깨끗한 행실을 보면서

“종교인이 오래 산다”

평균 80세... 정치·연예인·교수, 언론인 단명

김종인교수 분석

종교인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인교수(원광대 보건행정학과)는 최근 「직업별 사망 연령의 조사분석을 통한 장수 모형 연구」논문 등을 통해 1963년부터 92년까지 30여년간 신문 부활기사를 중심으로 사회 저명인사 1천2백83명을 직업별로 나눠 사망연령을 분석한 결과 종교인이 가장 오래 살고 저작자의 수명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사회저명인사의 평균사망 연령은 69살이며 종교인(80살) 정치가(72살) 연예인(71살) 대학교수(69살) 고공무원(69살)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업가(68살) 법조인(68살) 예술가(66살) 체육인(65살) 언론인(64살) 저작자(62살) 등은 평균사망 연령치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80살로 가장 장수한 종교인은 가장 단명한 저작자의 평균 62살보다 18년을 더 오래 산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기간 중 가장 장수한

인물은 종교인인 김대인 전 조계종 대종사로 96살이었으며 이공주 전 원불교 수도원장이 95살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한편 종교인 가운데 가장 단명한 이는 61살에 위암으로 사망한 황문성 전 천주교 대 전교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수는 종교인이 장수하는 이유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결혼 임신 이혼 별거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때문이며, 언론인·저작자들은 흡연·폭음 등 불규칙적인 생활과 정신적인 억압 때문에 단명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불교문화센터 9기 강좌 개설

꽃꽂이·노래부르기 등 과목다양

대한불교진흥원(이상장 서단장) 불교문화센터 9기 강좌가 오는 12월 1일부터 열린다. 불교문화센터에서는 일반 문화센터에서 접하기 어려운 유마경과 아이타경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해담스님과 동봉스님에 의해 강의하며 한국선명상문화센터 원장 예인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생활선 등 13개 강좌가 새로이 신설됐다.

이밖에도 우리기타 배우기, 생활역학 강좌, 노래부르기 교실, 불교점통 꽃꽂이, 요가, 다도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점통, 교양, 취미, 예술강좌 및 어린이·유아강좌 등

다양한 강좌가 운영된다. 문의 (02)703-0108

정신대 위령탑 건립 29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정신대위령탑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묘주)는 오는 29일 경기도 안양에서 정신대 위령탑 건립 기공식을 거행한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의 감사인 권연경씨의 기증으로 안양시 간암동 신44-1번지에 6백여평의 공간을 확보한 정신대위령탑 건립추진위원회는 위령탑을 세우고 산교육장을 만들 계획이다.

정신대위령탑은 95년 8월15일 준공예정이다.

(주) 해인·동아디젤상사

선박 엔진의 모든 것 동아 디젤 상사에 맡겨 주십시오.

최고의 엔진·최고의 성능,
(주)해인
-동아 디젤 상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 동아 디젤 상사의 선박 엔진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엔진입니다.
- 판매에서 AS까지 섬기는 자세로 고객을 대합니다.
- 엔진의 성능은 곧 선박의 선능입니다.
- 안전 운항·쾌적 운항, 동아 디젤이 돕겠습니다.

(주) 해인
동아디젤상사
DONG-A DIESEL CO.
부산시 영도구 남영동 17가 22
TEL: (051)415-1250-1
(051)415-1432
FAX: (051)415-1461

